



제46회

평신도 주일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집

-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발 행 일

2024년 5월 1일

발 행 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감리회관 16층
T. 02)399-4346~9 F. 02)399-4350
kmc.or.kr

발 행 인

이 철

편 집 인

문영배

교정·교열

조은희 김주선

편집·디자인

그리심

비 매 품

I. 평신도주일 인사말 / 이철 감독회장	4
II. 평신도주일 자료집을 펴내며 / 문영배 총무	7
III. 설교자료	9
1) 나의 갈길 다 가도록 / 박장규 감독	
2)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 오수철 장로	
3) 때가 이르지 않았어도 / 서순중 장로	
4)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 김형철 목사	
IV. 기도문 : 조은하 교수	30
- 평신도 기도주간 기도문	
V. 평신도주일 성수를 위한 자료	38
1) 평신도주일 성수방법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VI. 평신도주일 성수 사례	41
- 수원제일교회 평신도주일 맞아 평신도 설교자 주일 강단에 세우다	
VII.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45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VIII. 부록	46
- 작지만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 : 복된교회	



섬김의 영성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평신도

이 철 감독회장

감리교회 장단기 발전위원회의 지속되는 주제는 ‘앞으로 미래에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동일했습니다. ‘섬김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한국교회신뢰도 조사의 결과를 보아도 기독교인들이 보다 윤리적인 삶을 살고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이라는 슬로건은 섬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섬김의 영성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시작이 된 존 웨슬리는 영국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개혁을 외치고 나섰던 사회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사회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역사를 이끌었던 메도디스트(감리교인)처럼, 그리고 한국 근대사의 주역이었던 한국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유산을 이어받아 영적 부흥과 사회적 성

화가 잘 조화된 선교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 평신도들이 큰 역할과 참여를 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복음전도자와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리교회가 영국사회를 개혁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평신도들의 사역과 참여가 없었으면 초기 감리교회 운동의 발전과 확산은 불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감리교회의 역사는 평신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30년 한국감리교회가 자치시대를 열었을 때 미국감리교회보다 앞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목회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한국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신앙정신을 시작부터 구현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땅에 성경이 처음 전해졌을 때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 설립의 주역이 된 것은 평신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으로 민족계몽을 이끌었고, 민족의 수난 현장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동참하며 민족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키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교회 분열의 시련 속에서 ‘하나 된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교회부흥과 사회갱신에 앞장서는 실천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1979년 평신도주일을 제정한 것은 평신도사역의 전문화와 평신도를 통한 부흥과 사회구원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해마다 6월 첫째 주를 앞둔 한 주간을 평신도 기도주간으로 보내고 난 뒤 평신도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평신도주일을 통해 시대를 이끌었던 감리교회 평신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회평신도국은 지난해 ‘자랑스러운 선교대상’에 이어 올해는 ‘사회봉사대상’을 제정하고 추진중입니다. ‘사회봉사’는 섬김의 영성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열린 예배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며 교회성장의 대명사가 되었던 월로크릭교회가 외적인 성장만 보일 뿐 삶의 변화가 없고

영적 성숙이 없는 교회의 모습에 스스로 실패했다며 고백하고 7년 동안 1,000여 개 교회와 25만 명의 성도들을 표본으로 하여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이끌어 낸 최상위 5% 교회의 특징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바로 '섬김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목회'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사회봉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스스로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메도디스트(감리교인)들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노숙자봉사센터, 보건예방 의료사회사업, 아동보육 교육사업, 무이자대출사업, 교도소 개혁, 여성차별제도개혁 등 모든 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활동들입니다. 사회봉사 활동의 중심은 평신도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닮기', '예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에도 계속 부흥하고, 장래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평신도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평신도주일 자료집을 펴내며

문영배 장로
사회평신도국 총무

올해로 제46회 평신도주일을 맞습니다. '평신도주일'은 1979년 제정되어 매년 6월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의 역할을 고민하고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며 평신도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해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기가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뜨겁지 않고 찬송이 이어지지 않으며 교우들과의 관계 역시 친밀도가 떨어집니다. 내 가족 내 교회를 우선시하는 게 당연해졌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약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환경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지요. 환경이 변했다면 나도 변해서 어떻게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맘과 정성을 들여야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사회평신도국의 총무로서 평신도주일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함에도 오히려 끌려가는 형국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기도에 기도를 거듭하게 됩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위기를 인식하고 뜻을 모아 함께 움직여주고 계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수동적인 평신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신도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인 영성집회와 세미나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섬김과 봉사에도 열심을 내주고 계시니 곧 열매가 풍성히 맺히리라 믿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 5:14)**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의 역할을 하는 평신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 발 크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의 실천하는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가 힘들면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걸음을 신나게 힘차게 보폭을 넓혀 내딛어 봅시다. ‘웨슬리나눔재단’, ‘재능기부은행’ 등을 통해 평신도의 능력을 발휘하여 신앙의 깊이가 깊은 만큼 넓이도 넓어질 수 있도록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제46회 평신도주일 자료집을 발간하며 세상의 빛으로 거듭난 평신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 다 가도록 (딤후 4:6-10)

박장규 감독

사회평신도국 국위원장, 경기연회 감독

〈세계는 지금〉이라는 시사프로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딜레마의 소재는 마약, 즉 아편 양귀비입니다. 탈레반의 거점도시였던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그만 아이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대마초를 말아 피웁니다. 탈레반은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엄청난 산지에 양귀비를 심어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권을 잡자 탈레반 지도부는 이제 와서 마약을 근절하겠다고 선포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서방국가에서 자금줄을 조이기에 마약산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마약을 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약자금으로 정권을 세웠지만 마약으로 무너져가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탈레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돈맛을 본 그들은 지금은 힘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먼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 기록은 A.D. 67년 경으로 추정

되는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네로 황제는 그 사건을 수습하고자 방화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씌워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합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였기에 ‘유언적 서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딤후 4:6) 그런데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르게 되니까 주변의 인물들에게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바울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마지막 인생에 어떤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1. 영원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

(딤후 4: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데마는 어떤 사람이였을까요? 바울 서신에서 보면 1)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몬 1:24)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데마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동역자, 즉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2)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골 4:14)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를 누가와 동격으로 거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바울 곁에서 얼마나 열심이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가까이에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누며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을 느끼고, 바울과 함께 사역

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까? 성경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유혹의 악한 흐름을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흐름을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의 그 맛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허물고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데마가 과거에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 뭐가 됩니까? 금세 부자가 되고, 금세 출세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핍박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은 지금 당장의 순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좋은 것입니다.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것입니다.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순간의 가치를 말하고, 신앙은 영원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당장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같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제공하고,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세상은 또 인생의 자량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킬 때 영원히 후회가 없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고난의 길보다 편함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딤후 4:10)

데마가 간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그의 고향 데살로니가의 지리적 위치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세기 문서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방 도시여서 수도인 로마보다 박해가 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의미는 희생적인 신앙에서 편안한 신앙으로 옮겨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한 극심한 박해를 피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고 데마는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픈 마음에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바쳤던 헌신적 신앙에서 ‘나’ 중심적인 이기적 신앙으로 옮겨갑니다. 일꾼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손님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데마의 길은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지기 시작할 때, 희생과 헌신을 거절할 핑계와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걸음은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죽음이 임박해 있어도, 그 영혼 가운데 샘솟는 영생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예수 믿고 얻은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영혼의 기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마음만은 감사요 기쁨입니다.

3.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고백이 무엇이였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갈 길 다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믿음의 길보다 자신의 길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잘못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천국,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현세는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8)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실재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오늘의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그런데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천국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믿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자신의 믿음으로 지켜 왔노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더욱 굳세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신 3:26-27)

오수철 장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신 3:26-27)

30대 후반에 경기도에 있는 주공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파트 당첨이라 아내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좋아했습니다. 매일같이 아파트 평면도를 들여다보면서, 여기가 안방이고 저기가 화장실이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날이 다가왔지만 결국 우리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음식도 거르더니 살이 빠져 핏줄이 보이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도 모세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신 32:5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이스라엘이 목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겪은 일들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지만,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분노하사 멸하려 하실 때에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가데스에 머물 때에 물이 없으므로 백성이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하자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 분노를 삭이지 못한 채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했습니다.(민 20:11)

여호와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그 행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육체의 가시인 자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하셨습니다.

모세도 요단을 건너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안 된다”는 응답에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 3:26)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충성했으나 공을 요구하지 않고 느보산에 올라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40년 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모세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약속하신 그 땅을 모세의 눈으로 바라보게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사고방식이 달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죽도록 충성한 후에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을 세우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충성한 후에 누리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눅 17:9-10)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으로 갔기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권고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신 34:7)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무덤도 없고 가족 얘기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왔었다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출 18:2-3)

아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 번째 읽을 때까지, 이 신명기 모세 이야기 부분에서, 소리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심정에 마음이 아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읽을 때에야 울지 않았다고 하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지 맙시다.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맙시다. 느보산의 모세처럼 공을 세웠더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맙시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만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합시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어도 (요 2:1-11)

서순중 장로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 교사 시절 제일 많이 했던 율동 찬양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지금도 찬양의 가사와 율동까지 세세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찬양은 멜로디 하나 바뀌지 않고 아이들에게 소중한 찬양으로 불립니다. 아이들은 신나는 찬양으로 부르지만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찬양의 가사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놀라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놀랍게 변화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받은 인생을 사모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단지 변화를 사모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계셨던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잔치의 주인은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여 가나의 혼인잔치를 찾아가십니다.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어떤 일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자신도 모르는 잔치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세리 삭개오와 마태의 초대에도 응하여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처럼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지만 문제가 없는 내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를 호기심으로만 마주한 헤롯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맞이한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냐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눅 23:8)**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 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마주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잔치의 주인은 모르는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할 때 평범한 잔치는 보다 특별한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며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해결되는 보다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와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맛보게 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4절)**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객으로 잔치에 참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가운데 이만큼 죄인의 구원과 복음의 선포와 동떨어져 있는 기적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거절”이 아닌 “가능”의 부분을 바라봅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이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장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지켜본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일을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믿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얼마든지 그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거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거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였다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는 일을 이룹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때 산과 같은 문제는 평지와 같아질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슥 4:7a)** 예수님께 맡길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맡기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담았지 포도주를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하인들은 “물이었던 것” 혹은 “물인 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자신들의 불안함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을 마주합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오히려 주인공인 신랑을 칭찬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요 2:9)**

하인들은 불안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때로 불안함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불안함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은 순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능력이 아닌 순종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문제를 맡김으로 그 마음을 돌린 사람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초청과 문제를 맡길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화하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민 14:20-24)

김형철 목사

시흥남지방 군자교회 담임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실 때,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반이 소실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도 불에 탔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화재 현장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불에 탔니까? 다른 곳은 타도 교회는 타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디의 성령 운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돈 안들이고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그 때 사람들이 또 비웃었습니다.

“교인들도 피해를 입고, 교회의 재산도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하십니까?”

교인들이 대부분 화재를 당하여 건축 헌금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몇 달 후에 무디 목사님은 영국에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부흥회 때

교회의 사정을 들은 영국 교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 건축 헌금이 영국에서부터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모은 헌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아니, 믿는 자의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서로 어려운 일, 괴로운 일에 부딪히니까 후퇴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불신앙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과거에 많이 체험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적용할 줄 모르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들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갈렙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뜨거움이 있었고,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 곁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갈렙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주하는 자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1.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우산장수와 갇힌장수를 아들로 가진 어머니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갇힌장수 아들의 장사를 걱정합니다. 반대로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장수 아들의 우산이 안 팔릴 것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그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겠다고 생각하며 좋아하고, 날씨가 좋으면 갇힌이 잘 팔리겠다고 생각하며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더니 그녀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본문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히브리어의 ‘루아흐’, ‘영’을 말합니다. 즉 갈렙의 영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갈렙은 영이 달랐기에 열 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함에도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뇌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이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영입니다. 이전의 가난했던 시절에는 하나님만 열심히 찾았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나아지자 교회들은 무릎 꿇는 예배당에 의자를 들여놓고 무릎을 꿇는 대신 다리를 꼬고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졌고 교회의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올라갔고, 성령의 역사가 멀어지면서 교회는 기울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이 때 베드로의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행 8:20-21)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이 빠돌어지고, 생각이 빠돌어지면 영이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2.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용감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동료를 구하다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신체장애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다행히 수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해수욕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하고 난 후에 모래밭에 누웠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의 상처 난 발을 보면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수영을 가자고 할 때 그는 거절했습니다. 안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아내는 한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다리의 상처는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표시예요. 당신은 훌륭한 행동을 한 결과로 그것을 얻었으니 결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상처를 얻었는지 생각한다면 언제나 당당하게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사람이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아내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을 때, 그 순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열등감을 타파하게 되었고 당당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생각도 남들과 달랐고, 말도 남들과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였지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말이 다른 열 명의 정탐꾼과 다릅니다. 믿음은 말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과 다른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3. 순종이 달라야 합니다.

세계의 여러 선교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번역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미의 부족국가에 들어가 글이 없는 곳에서 언어를 만 들어 주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선교회의 선교사 한 사람이 남미의 한 마을에 들어가 성경번역을 하다가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만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네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네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는 ‘순종’이란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좇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의 ‘온전히’라는 히브리어 ‘말레’는 ‘만족시키다, 고갈을 해소시키다’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소시켜 드리듯 하나님 뜻에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에서 다 ‘온전히’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을 반만 드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좇았습니다. 온전히 한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순종하며 좇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렙에게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땅을 소유하고 축복받는 경험을 만끽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가나안 입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 최선을 다한 신앙에 풍성한 보상과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차별화 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갈렙처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평과 불평으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슬퍼하며, 곡하며, 삶을 포기하는 자학 속에 있다 해도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이제 달라야 합니다. 갈렙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 신앙이 되어 영원히 기록에 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 평신도 주일 기도문

조은하 교수
목원대학교 신학과

문명전환 시대라고 할 만큼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인구변동, 기후변화, 신냉전시대 등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와 동시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식 폭발의 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지혜가 더욱 갈급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생태위기와 기후변화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다음세대의 삶에 대한 실존적 책임을 스스로 묻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지구 곳곳의 전쟁의 소리와 그 상황 속에서 희생되는 어린아이들과 약한 자들의 비명소리가 처참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대화와 공존의 시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생명의 주인되시고 역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어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병이어만 있는 배고픔의 현장에서, 이미 무덤에 누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수난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지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바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 4:6-9)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정

5. 27
(월요일)

디모데후서 1:3-5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삼켜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의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가정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의 가정이 다른 이웃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어른들이 마음과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들이 존중받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육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5. 28
(화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1:2-4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저희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섬김을 통하여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보게 하시며, 죽음이 만연된 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선교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인도자 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희망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일터

5. 29
(수요일)

골로새서 3:23-2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늘도 저희의 삶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오늘의 삶의 현장가운데 보내주시고 각자가 맡은 일들을 수행해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희의 일터에서 달란트를 발휘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땀 흘리고 수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열매를 위하여 진실하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터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정직함과 공정함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을 통하여 거둔 결실을 주를 위하여 기쁘고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며,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까지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와 함께 누리는 초록빛 은총

5. 30
(목요일)

시편 8: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꽃과 새와 하늘과 바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 때를 따라 주시는 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더욱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청지기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욕망과 탐심으로 주님의 창조세계를 훼손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자연의 생명을 풍성히 하고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초록빛 은총을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연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의 역사 안에 임하는 평화

5. 31
(금요일)

사사기 2: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
고 감탄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아야 하지만 지구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힘과 이념으
로 대치하고 전쟁하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약한 이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
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포화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
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의지하
여 평화를 간구합니다.

탐욕과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과 희망의 산으로 오를 수 있도록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울부짖음과 탄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애통함을 들어 주시어 저희 모두 평화와 정의의 전령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되신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

6. 1
(토요일)

에베소서 1:22-23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
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어 가는 선교공동
체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널리 펼치는 증인공동체입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굳건히 세
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작
은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
다운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일상이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
니다. 아멘.

1. 평신도주일 성수 방법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제정되어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로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 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알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가. 목 적

평신도주일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소명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감리교회의 특별 신앙실천운동이다. 이를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하고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며, 평신도단체간의 유대가 강화될 것이다. 평신도주일을 잘 성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평신도가 되도록 한다.

나. 방 법

- 1) '평신도주일' 광고를 2주 전에 교회주보에 게재하여 전 교인에게 홍보한다.
- 2) 평신도주일 1주 전 평신도주간(5.27 ~ 6.1)은 자료집에 수록한 "기도문"의 '말씀과 기도'를 참고하여 기도하는 주간으로 지킨다.

- 3)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든 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4) 신앙의 본이 되는 평신도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자랑스러운 평신도상'을 세운다.

다. 평신도주일헌금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주일을 성수하고 드려진 헌금은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취합하여

- ① 90%는 지방 평신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며,
- ② 10%는 사회평신도국으로 보내 평신도운동 활성화 사업과 불우 이웃돕기 및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에 사용한다.

라. 평신도주일 성수결과 보고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첨부자료의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7월 31일까지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한다.

| 제출방법 | ① 팩스 : 02-399-4350

② e-mail : sa-pyeong@daum.net

③ 우편 :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사회평신도국

| 문 의 | ① 전화 : 02-399-4346

2. 평신도주일 및 주간 프로그램 예시

행사주간	프로그램	방 법
개체 교회	평신도 기도주간 5/27(월)~6/1(토)	• 평신도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 평신도주일 1주 전 주일에 전 교인에게 '주간 기도문'을 배부하며, • 요일별 기도제목으로 기도한다.
	평신도주일 예배 6월 2일	• <평신도주일 자료집>에 수록한 예배문으로 평신도주일 예배를 드리고, • 예배순서에 평신도들이 참여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소년소녀가장 초청행사 등) • 불우이웃돕기 물품전달식을 갖는다.
	감리교인 생활수칙 실천	•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실천한다. • [감리교인 생활수칙' 전단지 무료배부]
지방	전도 운동	• 지방 내 교회가 합동 노방전도 때 거리청소를 병행한다.
	평신도상 수여	• 사회봉사상, 전도상, 효자효부상, 다자녀다복상 등을 선정하여 지방 연합행사시 시상한다.
	평신도 재능기부 운동	• 평신도주일 기념사업으로 미자립교회 개보수 재능기부사역을 실시한다.

제45회 평신도주일 맞아 평신도 설교자 주일 강단에 세우다

(웨슬리안타임즈 김형준 기자, 2023.06.05)

수원제일교회(박성영 목사)

- 6월 4일 평신도주일 강단에서 평신도설교자가 말씀 선포
- 5월 29일(월)~6월 3일(토) 한주간 평신도기도주간으로 보내
- 특송은 하느레찬양대와 장로부부, 찬양은 다드림 찬양팀이 섬겨

2023년 6월 4일(주일) 수원제일교회(박성영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지켰다. 특별히 평신도설교자가 주일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했다.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도록 해 왔다. 이는 평신도가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라는 주제와 함께 수원제일교회는 5월 29일(월) ~ 6월 3일(토) 한 주간,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에서 주관한 평신도 기도 주간을 지키며 함께 주어진

제목에 따라 기도함으로 평신도주일을 준비했다. 그리고 6월 4일(주일) 평신도주일을 지키며 3명의 평신도 설교자가 1~3부 예배에 각각 설교를 맡았다.

박성영 담임 목사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다뤄졌고, 일반 성도들은 회당에 가서 율법교사와 랍비들에 의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사제들이 미사를 통해 주로 말씀을 읽어주었을 뿐 성도 개인이 성경을 직접 소유하고 읽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성경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모두가 소유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신도주일을 통해서 말씀과 설교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장로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영적인 도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평신도주일의 의미를 전하며 평신도 설교자들을 소개하였다.



박성영 목사

1부 예배 설교를 맡은 황석 장로는 로마서 8장 31~39절을 본문으로 ‘평안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쟁하도록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평안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라며 “성경에서 예수님은 풍량이 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1부 예배 설교 황석 장로

으로 평안을 지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넉넉히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2부 예배 설교 장채광 장로

2부 예배 설교를 맡은 장채광 장로는 시편 51편 10~12절을 본문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윗이 주가 구원하신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라며 “어떤 역경과 어떤 수치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3부 예배 설교를 맡은 이근홍 장로는 에베소서 1장 20~23절을 본문으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첫째,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3부 예배 설교 이근홍 장로

이날 특송은 2부 예배에 하느레찬양대가, 3부 예배에는 장로부부가 담당했으며 다드림찬양팀(리더 이현범 목사)의 찬양이 더해져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갔다. 또한 박성영 목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 많은 평신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셨음을 강조하며 안내위원, 헌금위원, 애찬봉사, 설거지봉사, 주차봉사, 찬양대와 찬양팀, 교회학교 교사, 예배 임사자 등 수많은 섬김의 손길에 박수로 감사를 표했다. 예배 후에는 소.리.치 전도팀이 교회 정문에서 전도하며 평신도주일을 마무리했다.



하느레찬양대



예배전경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선언문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도는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1.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3.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4.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6.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작지만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 복된교회

박창현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학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아 사회평신도국에서는 “자랑스러운 선교대상”을 제정하여 감리교회 중 지난 3년간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를 선정하여 수여하였다. 이는 교회 성장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감리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이다. 선정된 교회 중 한 교회의 사례를 살펴 적용할 수 있도록 선교학적 분석을 덧붙여 소개한다.

강화의 초지대교를 지나 조금만 가면 멀리서도 아름다운 성전 모습이 뚜렷이 눈에 들어온다. 1979년 1월 1일 세운 복된교회(중부연회 강화남지방회 / 담임 이성찬 목사)이다. 2019년 4월 이성찬 목사(당시 전도사)가 부임하여 첫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는 17명 가량의 성도가 있었다. 한때는 100여 명에 육박했으나 교회 내 아름답지 못한 사건과 한국 개신교회의 쇠퇴 분위기가 맞물려 10여 명이 예배하는 수준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목사가 9년간의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이 교회에서 처음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만 1년 만에 교회는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전환되었다. 또 만 4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말에 41명(여 29, 남 12)이 등록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연회 통계표에 따르면 주일예배 통계가 2019년 30명, 2020년 31명, 2021년 38명으로 매년 대면예배 교인들이 증가하였다. ‘비대면예배교인’(주일성수를 지키며 주일은 꼭 교회에 몸으로 출석하여 직접 예배를 드려야만 교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비대면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인이라는 의식이 만들어진 신조어)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히 도서지역 교회 성장에 좋은 모델이 되기에 그 성장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복된교회의 건강한 성장에는 이성찬 목사의 건강한 삶과 신앙, 그리고 신학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 목사는 강화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만한 거부(어업) 집안의 아들이었다. 무속을 신봉하는 집안이었으나 이 목사의 할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모든 가족이 처음 교회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새벽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만큼 신앙에 몰두하는 가정이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집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빠졌다. 이 목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어업과 농업을 하며 강화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야 했다. 삶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그와 그의 가족이 겪는 어려운 삶, 바로 이것이 자신의 십자가라는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소명을 받아들인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소명을 완수하는 목회자로 살기로 결심하였다.

격변의 청년 시절에 올바른 신앙적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된 데는 가까이에서 그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신앙의 길로 안내하고 삶의 문제에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준 김창겸 목사의 지도가 있었다.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해석하도록 돕는 영적 멘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복된교회 예배전경

일상에서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삶

이성찬 목사는 어떻게 처음으로 담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복된교회를 단기간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 이 목사는 자신이 소명 받은 교회의 여건, 특히 교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나이 든 교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무너져가는 농어촌 지방(시골)의 환경, 즉 지역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와 관심을 채우고 이것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사랑’으로 승화시킬 능력을 갖춘 목회자였다.

교인들은 이 목사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 특히 나이 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사가 있다고 증언한다.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수도가 터져서 연락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해결해 주고 불이 나간 형광등이 없는지 살펴서 갈아준다며 “신앙생활을 40~50년 했지만 그동안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라고 자랑한다.

이성찬 목사가 목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가 CBS ‘우리동네, 우리교회’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 목회와 교회를 표현한 말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입니다. 서로 진심으로 위로할 때 위로받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다른 사람과 또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또 누군가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잠시 드렸지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심방하고 대문 앞에서 기도해드리고, 주보에 말씀실이 나눠드리면서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상에서 교인들을 감동시키는 삶은 그의 건강한 신학 ‘이웃사랑’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웃사랑에서 이웃은 나 외의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회 밖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교인을 포함한다. 이 목사는 한 식구같이 지내는 교인들끼리도 교회 내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한다. 나이 차이가 있어도 서로 존중한다는 자세로 존댓말을 쓰게 독려한다. 특히 이 목사는 다른 교인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적극 도와야 함을 강조하며 가장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가 말하는 이웃이 교회 밖의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복된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기 헌금을 나누어 도움을 주고, 교회 절기 때마다 떡과 삶은 계란 등을 나누며 교회의 이웃을 대접하는 데서 드러난다. 사랑에 감동받은 지역 사람들은 교회 절기가 되면 마음을 담아 축의금처럼 봉투를 전해 온다. 또한 복된교회는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해외 선교사 7명을 지원하며 교회 밖 땅끝까지 선교하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이 목사의 숭선수범하는 사랑의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문을 쉽게 두드리게 하였고, 도움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사랑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었다.

신앙적인 건강함

그는 자신이 교회에서 한 사역을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그럴 수 없을 때는 홀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라고 정리한다. 이성찬 목사가 복된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던 것에 대하여 언급한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새벽 제단에 힘을 쏟았습니다. 몇 분 안 되지만 거의 반 이상의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여 교인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그는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를 느낄 때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교회 예배당을 개방하였다. 이 목사는 교인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지침을 전달했다.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스스로 입 밖으로 크게 소리 내어 기도하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것인가?’만을 하게 하고, 오로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교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관심을 두고, 문제에 공감능력을 키우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을 목회의 목표로 삼았다.

이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에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예배하며, 말씀으로 감동되어 사는 경건한 삶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시절 교인들이 잠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일일이 교인들을 심방해 그들의 대문 앞에서 기도하고, 주보에 그 주의 설교 말씀을 실어서 나눠주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교인들에게 보였다.

이처럼 건강한 신학에 근거한 사역들은 교인들이 신앙의 기본을 지켜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적인 모습들로 드러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 성도 간에 화해와 사랑의 분위기를 회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그것을 지켜본 가까운 이웃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도록 영향을 주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교회 안에서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는 교인들의 신앙 경험은 전염병처럼 짧은 기간 안에 확산되어 주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게 하였다. 이렇게 오래된 도서 지역의 침체되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신학을 가진 전도사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단시간 안에 선교적인 성과를 거두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다.



복된교회

제46회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서 (I)

수 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제 목 : 2024 제46회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보고서

1. 교회 현황

[illegible]

2. 교회별 평신도주일 주요 행사

구분	교회명	비고
낮 예배		
저녁(오후) 예배		
낮 예배+저녁(오후)예배		

연회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인)

평신도주일 성수 결과 보고서 (Ⅱ)

[지방 연합성회]

1. 일 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2. 장 소 :

3. 참여교회 : 지방 교회 수 _____ 교회, 참여 교회 수 _____ 교회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교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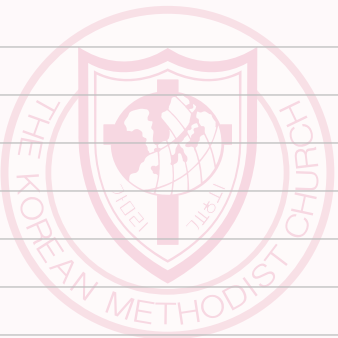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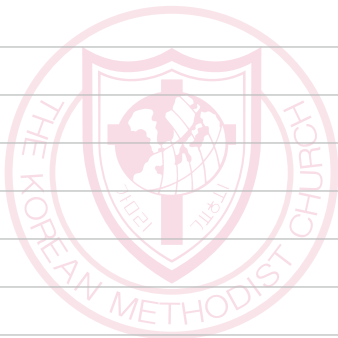
4. 현금총액 : _____ 원

5. 연합 행사 내용

6. 기 타

연회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_____ (인)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